

4·3 수형 피해 유족 등 341명 재심청구

불법적 군사재판 받고 수감생활 중 사망·행방불명 유족들 “영문도 모른채 희생돼... 명예를 회복할 것”

제주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행방불명된 이들의 가족이 18일 집단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직후 제주 4·3수형 생존자 10명 가량과 수형 행방불명 330여명 등 341명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에 이어 수형 행방불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다. 지난해 6월에는 수형 행방불명 10명의 직계 가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수형 행방불명들은 제주 4·3 당시 군·경의 토벌을 피해 피신 생활을 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합된 뒤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뒤집어썼다. 이들은 전국 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감돼 수형 생활을 하다가 병들어 사망하거나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집단학살됐다.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된 수형 행방불명 2530명에 이른다.

재심청구 법률대리인인 최낙균 변호사는 “지난해 6월과 오늘(18일) 재심을 청구한 유족들은 수형 행방불명인과의 가족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라면서 “그러나 상당수 수형 행방불명들은 가족들이 연좌제에 휘말

려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수형인 기록에 이름과 주소를 일부러 틀리게 적어 가족 관계 입증에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열리면 수형 생존자와 달리 행방불명들의 특성상 당시 현장을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들이 나와 진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필문 제주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당시 군사재판은 불법적으로 선포된 계엄령과 제정·공포되

지 않은 국방경비법에 의거한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이고, 아무런 죄도 없는 양민들을 영장도 없이 무차별 끌고 가 불법으로 구금하고 형을 집행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면서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족들은 나이 들고 많이 쇠약해진 상태로 죽기 전에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문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은 “희생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골짜기에서, 동굴에서 죽음을 당했다”면서 “유족들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해 생일날 제사를 지

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수형 행방불명 유족들은 법원이 지난해 1차로 청구된 재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은 하루속히 먼저 제기된 재심 사건을 진행하라”면서 “오늘 제기한 재심 사건 역시 청구인들이 부디 살아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게 빠르게 진행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의를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는 수형 생존자 18명이 70여년 만에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4·3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행방불명된 피해자들의 유족 등이 18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출입구를 막거나 앞에 물건을 적치해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는 건물 부설주차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각종 물건이 쌓여있는 부설주차장. 김현석기자

창고로 사용되는 부설주차장 수두룩 용도변경·출입구 폐쇄·물건적치 불법행위 여전

제주시 지난해 7709건 적발

부설주차장 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제주시 이도2동 내 한 주택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한 주택에는 주차장 내에 화분, 자전거, 의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창고를 방불케 했다. 인근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는 1층 식당 옆 공간에 자동차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지만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제 통, 냉장고, 음식물 쓰레기통, 화분 등으로 가득했다. 내려진 철문에는 ‘주차장 입구 주차금지’라는 알람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인근의 다른 주상복합 건물 1층에도 편의점이 영업하고 있었으나 조성된 주차장에 냉장고, 테이블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다.

주민 김모(39)씨는 “개인 주택 등에 주차장을 조성해도 주차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에서 단속을 나와도

그때만 잠시 짐을 치우고 도로 꺼내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시 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4214건(2만2532곳 조사)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2018년에는 2551건(2만2831곳)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7709건(2만3562곳)이 적발돼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경미한 사항 4398건, 용도변경 1269건, 출입구 폐쇄 448건, 물건 적치 1594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7709건에 대해 5858건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1186건이 완료됐으며, 665건은 명령 이행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 읍면동에서 실시하던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지난해 행정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서귀포 동지역 화재 원인 ‘부주의’ 최다

10건 중 6건꼴 발생

지난해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절반은 소각 부주의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귀포소방서가 실시한 2019년 화재발생 원인 및 발화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귀포소방서 관할 구역인 서귀포시 동지역(읍·면 제외)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05건으로 전년(96건)에 비해 9.4% 증가했다.

105건의 화재 중 발생원인은 부주의가 62건(5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0건(19%), 미상 9건

(8.5%), 자연적 요인 6건(5.7%), 기계적 요인 3건(2.8%), 화학적 요인·가스누출·교통사고·방화·의심·기타 각 1건(0.9%) 순이었다.

발생장소는 건물물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야 26건, 야외도로 21건, 차량 14건 순이다.

이에 서귀포소방서는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적 소각행위를 금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귀포소방서는 특히 불법적인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도 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단체 회장 법정구속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철폐내 도내 민간단체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지역 도 민간단체 회장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5월 서귀포시 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사기 혐의로 사업 시행자인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철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민원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해안가서 백골시신 발견

서귀포시 웅머리 인근 해안가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황우치해변에서 해안가 정화활동을 하던 주민이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골 일부와 옷가지 등이 발견됐지만 너무 오래돼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그랜드보청기

경자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 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착용 그랜드 첫 방문 고객
배터리 무료 증정(25,000원 상당)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너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웅웅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라대입구,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한라체육관, 일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해외.영농 투자자 모집

사업명 : 제주한라봉.레드향.감귤농장

- 영농지역 : 베트남.다낭 (평남성)
- 사업규모 : 300ha (약100만평)
- 영농투자인원 : 5~6인 선착순
- 투자금액 : 1인당 10만usd 1억2천만원
- 투자자 : 1인1ha (3천평). 현지. 국제. 변호사공증. 본인명의
- 사용기간 : 50년간
- 소득 : 2년 경과후 3만usd 보장
농장매매 및 상속가능
재해보험가입가능 (주.정부행정지원)

문의 상담 : 제주시 봉개동 (황금농원)
H.p. **010-9292-693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